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월 16일(월) : 2023년 사업계획(안) 수정 검토 회의
- 1월 17일(화) : 기자촌 기록화 사업 편집 회의
- 1월 18일(수) : 기자촌 재개발 기록화 사업 추가 인터뷰

■ 연구원 소식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작일: 2023년1월16일(월)부터
- 기부금합산기간: 2022.01.01.~2022.12.31.

영수증 발급과 관련 수기영수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늦봄, 소천하다 - 1994. 1. 18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 이야기되는 한반도의 두 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기도 한다. 어언 78년째, 권력의 키를 쥔 위정자들의 놀음에 무도(無道)한 인민(人民)으로 밀려난 이들은 원수였다가 한 핏줄임을 반복하는 역사의 희비극을 수놓아 가고 있다.

이런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 우뚝 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늦봄이다. 그는 스스로를 늦봄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봄은 봄(春)이 아니라 봄(視)였다. 즉 늦게 눈을 뜨고 늦게 보았다는 뜻으로 일종의 자책의 의미가 담긴 뜻이었다.

그는 1918년 6월 1일 만주 북간도 화룡현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윤동주, 송몽규 등과 죽마고우였고 항일에 매진했던 친구들의 죽음과 그 장례식을 아버지가 치르며 불과 몇 달 후 해방을 맞이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에 자원해 유엔 극동사령부에서 통역으로 근무했다. 전쟁 이후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구약학자이자 강단의 교수였고, 성서 번역가였다. 히브리 민족의 연원을 하나의 혈연공동체가 아닌 하층 집단의 연맹을 일컫는 '하비루'(천민, 노예, 강도 등의 뜻)로 보았던 그는 구약성서를 관통하는 민중과 지배의 역사, 압제와 저항, 폭군과 예언자의 역사를 통해 '민중'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실천을 통해 그를 선언했다.

절친한 친구 장준하의 의혹 넘치는 죽음을 계기로 그는 암전한 목사, 책상머리의 구약성서 번역자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향해 분노를 내지르고 새로운 세상의 빛을 뿌리는 예언자로 나선다. 내 거래에게서 가족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이들을 향하여 포효했고 못된 놈들에게 등쳐 먹히는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규하는 맹렬한 시인으로 내달는다. 늦바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늦봄도 무서웠다.

1976년 "늦게 세상을 본"이후 그가 죽은 1994년까지의 18년 동안 그는 11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었다. 야곱의 돌베개 따위는 그의 고행에 비하면 일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잡아먹은 메뚜기도 11년이 그의 입에 넣어야 했던 관식보다 맛이 달았을 것이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강만길 선생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표현했던 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성을 지녔다. 그 순수함과 열정을 무기로 새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중적 통일 운동에 매진하던 중 너무도 어이없게 숨을 놓고 만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뜨는 그 순간까지도 맑고 따듯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숨을 놓은 지 나흘 뒤 그의 장례식장은 펄펄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가 누운 상여 위에는 태극기 대신 흰 바탕에 파란색으로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놓여졌고 "통일의 날 돌아오소서"라는 만장이 펼쳐졌다.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부활의 언덕을 오르자"는 다짐의 노래 속에 그를 보낸 지 어언 29년.

어쩌면 한반도의 하늘은 그때보다 더 어두운 듯하다.